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다시 1%P차 초접전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여론조사 트럼프 앞서는 곳도

당선 가능성은 힐러리 월등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재수사 착수로 열흘도 남지 않은 미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클린턴 우위 구도의 현 판세가 조점전 양상으로 바뀌는 형국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공개된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의 추적 여론조사(10월 25~28일·1160명)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대 45%로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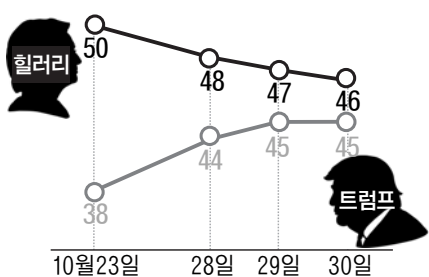
자유당의 게리 존슨과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 2%였으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양자대결에서는 49%대 46%로 클린턴이 트럼프에 3%포인트 앞섰다.

이 두 매체의 추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과 1주일 전 12%포인트(클린턴 50%, 트럼프 38%)까지 벌어졌던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전날 2%포인트(47%대 45%)까지 줄어들었으며 FBI의 재수사를 계기로 한층 더 좁혀졌다.

이번 최신 조사는 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반영된 것으로, FBI 재수사가 실질적으로 막판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응답자의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추이

(단위:%, ABC뉴스·워싱턴포스트)



34%는 FBI 재수사 때문에 클린턴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졌다고 답변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은 클린턴이 60%로, 29%에 그친 트럼프에 여전히 월등하게 앞섰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앞서 지난 28일 미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당초 이메일 수사와 무관한 것으로 분류한 이메일 중에서 수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사실 계정으로 주고 받은 이메일 중에 추가로 기밀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합주에서도 최근 한 해 확실했던 클린턴의 우위가 약화되면서 경쟁이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5~26일·779명) 양자 대결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46%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 존슨과 스



최수복 입은 힐러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베네티안 호텔 유세장에서 최수복을 입은 채 힐러리 클린턴의 가면을 쓴 사람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인을 포함한 4자 대결에서는 클린턴이 45%로 트럼프(44%)를 불과 1%포인트 앞섰다.

시에나대학교와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25~27일·815명)에서는 4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46%로, 클린턴(42%)보다 4%포인트 우세했다. 양자 대결에서도 트럼프가 48%로 클린턴(45%)을 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로 불리

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도 클린턴의 압도적인 우세가 다소 축소됐다.

일간 USA투데이와 젊은 층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진보 단체인 ‘록 더 보트’(Rock the Vote)가 지난 24~27일 투표 의향이 있는 18~34세 유권자 1299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2%로, 지난 11~13일 68%에 비해 6%포인트 떨어졌다. 트럼프는 20%에서 21%로 1%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시진핑 ‘핵심’ 지도자 격상…中 관료들 잇단 충성 맹세

중국의 ‘핵심’ 지도자로 격상된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당 간부와 군, 관료들의 충성 맹세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정치, 경제, 외교, 국방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과 종엄지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완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다음 날인 지난 28일 국무원 당조직과 내각 그리고 모든 부처에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 정치 및 사상을 구현하라고 요구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간부들에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핵심인 시 주석이 국가와 당의 번영 및 보호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27일 폐막한 18기 6중전회 공보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이 처음 사용되면서 사실상 ‘시진핑 전하’가 되자 국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됐으나 18기 6중전회를 기점으로 ‘권력의 추’가 시 주석에게 완전히 기운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을 총괄하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도 지난 30일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따르고 엄격한 당 규율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해방군과 무장부대에 18기 6중전회의의 정신을 배우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중앙군사위원회 각 부서도 ‘절대복종’을 강조하면서 당 중앙

의 방침과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했다.

지방 정부의 시 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도 잇따르고 있다. 루신서(鹿心社·60) 장시(江西)성 당서기는 18기 6중 전회가 끝난 뒤 당위원회를 소집해 장시성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한몫이 되어야 한다면서 6중 전회의 결과를 학습하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에게 ‘핵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관원 학자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왕더수이(王德水) 베이징(北京)대 영정(廉政)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시 주석이 ‘핵심’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핵심이란 개념은 시의 적절하다”면서 “자기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 특히 19기 당 중앙위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며 중국에서 개혁을 심화하려면 확고한 핵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일본 찾은 외국인 올 2천만명

중국·한국·대만 순으로 많아

올해 들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 30일 기준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고 일본 관광청이 31일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 방일 외국인이 2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기록은 연간 방문객 197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를 10개월만에 넘어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연간 4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일 외국인은 2013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2014년에는 1341만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1~9월 누계 방일 외국인은 179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증가율 47%보다는 낮은 것으로 방일 외국인 증가속도는 둔화하는 추세다. 올 1~9월 방일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50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서성(書聖) 왕희지

왕희지(王羲之, 307~365)는 남야 왕씨 출신으로 자는 일소다. 우군장군과 회계 내사를 지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왕우군 또는 대왕이라고 불렸다. 해서·행서·초서의 서체를 완성한 것으로 서성(書聖)으로 불리운다.

부친은 왕광으로 일찍이 단양대수를 지냈다. 어릴적 부친을 잃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모친과 형의 보살핌을 받았다. “저는 하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일찍이 불행을 당해 부친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모친과 형의 양육을 받아 점점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어려서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채옹의 필론(筆論)을 몰래 보며 서법을 익혔다. 13세때 예부상서 주위의 집을 방문했다. 주위는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장차 큰 인물이 될거라고 생

각했다. 당시 손님에게 구운 소의 심장을 대접하는 것이 최상의 예의였는데 주위는 가장 먼저 그에게 주었다.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 그는 집안 어른인 왕도와 왕돈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왕돈은 늘 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기대주로서 손색이 없게 될 것이다”고 칭찬했다. 당시 저명한 학자인 완유는 그를 왕송, 왕열과 함께 세명의 젊은 인재인 삼소(三少)라고 불렀다.

그의 결적인 난정서(蘭亭書)는 내사 제직 중인 353년에 탄생하였다. 난정의 유상곡수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명사들의 시를 모아 만든 책에 서문을 쓴 것이다. 당대중 이세민은 특히 난정서를 좋아해 평생 그 필체를 즐겼다. 일설에 의하면 유언으로 자신의 관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애민사상이 깊었다. 부처에 글을 써 빈민을 구제할 일화는 유명하다. 하루는 춘산에서 늙은 아낙이 옥각선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이를 보고 옥각선에 각기 5자씩 큰 글씨를 써주면서 “이것이 왕희지의 글씨라고 하고 100냥에 팔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왔다투어 사 순식간에 부채가 동이 났다고 한다. 시선 이백은 “정묘한 운필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평하였다.

해서·행서·초서 서체 완성…‘난정서’ 유명

관할이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자 355년 은둔생활을 결심했다. 오두미교에 심취한 그는 아홉다운 회계에서 산수를 유량하고 낚시질을 즐겼다. 약초를 캐기 위해 천리길을 돌아 다녔다. 양생술을 익혔고 이로 인해 말년에는 약물중독으로 고통을 겪었다.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는 이부상서 사만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였다.

그의 결적인 난정서(蘭亭書)는 내사 제직 중인 353년에 탄생하였다. 난정의 유상곡수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명사들의 시를 모아 만든 책에 서문을 쓴 것이다. 당대중 이세민은 특히 난정서를 좋아해 평생 그 필체를 즐겼다. 일설에 의하면 유언으로 자신의 관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애민사상이 깊었다. 부처에 글을 써 빈민을 구제할 일화는 유명하다. 하루는 춘산에서 늙은 아낙이 옥각선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이를 보고 옥각선에 각기 5자씩 큰 글씨를 써주면서 “이것이 왕희지의 글씨라고 하고 100냥에 팔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왔다투어 사 순식간에 부채가 동이 났다고 한다. 시선 이백은 “정묘한 운필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평하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할이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자 355년 은둔생활을 결심했다.

오두미교에 심취한 그는 아홉다운 회계에서 산수를 유량하고 낚시질을 즐겼다. 약초를 캐기 위해 천리길을 돌아 다녔다. 양생술을 익혔고 이로 인해 말년에는 약물중독으로 고통을 겪었다.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는 이부상서 사만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였다.

그의 결적인 난정서(蘭亭書)는 내사 제직 중인 353년에 탄생하였다. 난정의 유상곡수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명사들의 시를 모아 만든 책에 서문을 쓴 것이다. 당대중 이세민은 특히 난정서를 좋아해 평생 그 필체를 즐겼다. 일설에 의하면 유언으로 자신의 관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애민사상이 깊었다. 부처에 글을 써 빈민을 구제할 일화는 유명하다. 하루는 춘산에서 늙은 아낙이 옥각선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이를 보고 옥각선에 각기 5자씩 큰 글씨를 써주면서 “이것이 왕희지의 글씨라고 하고 100냥에 팔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왔다투어 사 순식간에 부채가 동이 났다고 한다. 시선 이백은 “정묘한 운필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평하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인천 오피스텔 분양

인천 호구포역 1분

임대 걱정없음 / 실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매가 1억 1천 → 대출8천 → 임대 보1천/월50만

▶ 실투자 500만 → 오피스텔 1채

경기도 화성 A.P.T
화성 시청 2분

분양전환

화성 시청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 1천만 투자 → 34평 아파트 1채

010-7384-7800

010-6670-9800

첨단 8층 빌딩 매매

북구 오통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합)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감평가 55억
매 가 38억
▶ 대 출 27억 가능
월수익 3천 보 6억
▶ 실투자 5억

1층 (상가) 120평 (식당 입점준비)
2층~7층 (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 (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010-7384-7800

010-6670-9800

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좋은 (약 4평 저운점질방)

사무실 최적합 / 주차 완비 / 즉시 입주

▶ 보 2천 월 60만

첨단 사무실 임대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1층) 사무실 임대

북구 우산동

구호전 / 안보회관 사거리

시설완비 / 즉시입주 / 위치 최고

▶ 보 1천 월 50만

010-6834-4800

010-6832-9700